



한산 세모시와 소곡주의 고장 서천

강 욱
자유기교가

천안에서 갈라진 장항선 철도의 종착지가 서천군이다.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서천군(舒川郡)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북도 군산시와 익산시와 인접해 있으며 서해바다 금강 입구는 유부도, 서북부는 보령시, 동북부는 부여군과 경계를 두고 있다.

차령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한 줄기 산맥이 슬쩍 지나치는 군의 북동부는 지대가 조금 높다. 그러나 보령시와 부여군에 맞닿은 곳에 솟은 원통산, 취산, 회이산, 천방산 같은 산들은 거개가 높이가 삼백 미터도 채 되지 않아 대체로 지대가 낮다. 야트막한 구릉들이 군 남쪽으로 갈수록 폭 가라앉아 시야가 탁 트인 넓은 평야를 이루는데 이것이 내포평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천평야이다.

넓은 들과 서해바다가 함께 있는 서천군은 전형적인 농·어업군으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고장이다. 서천은 근래

에 와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서해안권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장항산업단지와 종천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점차 공업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해안선의 길이가 70km가 넘는 서천군이지만 경제적으로 수산업의 비중이 큰 몫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1979년에 서해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바다가 오염되어 동백정 해수욕장은 폐장이 되었고 해안에 있던 김 양식장도 걷어치웠다. 서천군의 수산물로는 연안에서 갈치, 오징어, 조기들이 잡히고, 몇 안되는 섬에서는 백합, 대합, 주꾸미 등이 좀 잡힌다.

서천읍보다 40년이나 먼저 읍이 된 장항읍은 서천군 안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다른 지역에 견주어 경제력이 넉넉한 편이다. 장항읍은 1930년에 장항항이 열리면서 이웃 군산과 함께 급속히 발전되었다. 서울과



장항을 잇는 장항선 철도가 개통되고 1936년에 장항 제련소가 생기자 이곳이 활기를 띠는 듯하였으나 군산시가 갑자기 커지자 그 활기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곳의 주민들은 예전에는 날마다 스무 차례씩 군산과 장항을 오가는 금강도선을 타고 군산시를 오가며 그곳의 학교에 다니거나 그곳에서 장을 봐 왔다. 그러나 금강하구 뚝이 생기면서 그 낭만적인 모습은 사라졌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구 뚝길로 나란히 철길까지 놓아 장항선 열차가 군산까지 연결될 계획이다.

우리나라 모시의 섬세함과 색채는 흔히 매미날개 같고 눈과 같이 희다고 형용되었다. 한국인들은 여름 옷감 중에서 모시를 최고로 여긴다. 이는 모시가 속이 비칠 정도로 통풍이 잘되고 촉감이 짹짹해서 시원할 뿐만 아니라 땀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성질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서천군의 한 면인 한산(韓山) 지방에서 나는 모시는 이곳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왔다. 「택리지」의 ‘복거 총론’ 편에 보면 “진안의 담배밭, 전주의 생강밭, 임천과 한산의 모시밭, 안동과 예안의 왕골논”이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한산 세모시’가 모시의 대명사처럼 불려왔다. 한산 지방의 모시 짜기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모시는 벗긴 모시풀의 껍질을 잘 손질하여 실을 뽑아낸 후 수공으로 짜서 만드는 것으로 손이 매우 간다. 모시 길쌈 과정은 재배와 수확, 껍질 벗기기, 모시삼기, 모시 날기, 모시 매기, 꾸리감기, 모시짜기의 순서

로 이어진다. 특히 모시를 짜는 것은 고도의 숙련된 솜씨를 필요로 하며 옷 두벌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한 필을 짜는데 보통 닷새 정도가 걸린다.

한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시의 명맥을 이어온 고장으로 매 5일 마다 모시 새벽시장이 형성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새벽 안개 속에서 쫓불로 모시의 진품을 가리는 시골 장터 모습은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 한산에서는 매년 5월 초순 ‘한산모시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전국 18대 관광문화제의 하나인 이 모시 축제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서천군의 또 다른 특산물은 한산 소곡주이다. 건지산 계곡의 맑은 물로 빚은 청주인 소곡주는 천산 약주, 서산 두견주, 안동 소주, 동래 산성 막걸리와 함께 유명하다. 한산 소곡주는 찹쌀로 빚어 100일 동안 익혀서 만드는데 조선 초기부터 한산, 기산 등지에서 만들어져 즐겨 마시던 술이다. 그렇지만 이 술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백제 멸망 후 그 유민들이 주류성의 마지막 항전 이후 그 한을 달래기 위해 빚어 마셨다고도 한다.

소곡주는 앻은뱅이 술이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조선 시대에 한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한산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는 타는 목을 축이기 위해 주막에 들러 미나리 부침을 안주 삼아 소곡주를 마셨다. 한 잔 술에 취한 그는 붓짐을 풀어놓고 계속 술을 마셨다. 취중이 돌아 시를 읊으며 달을

즐기다가 낮이 되면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다시 술을 기울였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버려 그만 과거 볼 낱짜를 놓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소곡주를 일명 앓은 땀이 술이라고 한다.

한산면 지현리에 있는 견지산성은 사적 제6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서산군의 해미읍성이나 공주시의 공산성같이 사람들이 잘 찾는 곳은 아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산성이 쌓인 때는 백제 말기나 통일 신라 초기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산성은 백제가 망한 뒤 백제 유민이 부흥 운동을 일으킨 근거지로 알려진 주류성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다.

견지산성은 말 안장 모양의 산봉우리에 흙과 돌로 축조한 산성이다. 약 300m의 성 둘레를 먼저 흙으로 쌓아 올린 뒤에 산성의 북쪽 산봉우리를 기점으로 서북쪽 계곡을 포곡식으로 약 1,200m 둘러싸서 중축하였다. 이 산성은 자연적인 지형이 동쪽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수구(水口)와 주문격인 동문 터가 동쪽 계곡 입구에 있다. 성내에 군창지로 보이는 곳에서는 까맣게 탄 쌀이 지금까지도 나온다.

보령에서 장항선 철도와 나란히 21번 국도를 따라가다 서천군의 경계에 들어서면 바로 비인면이 나온다. 비인면 성북리에 있는 비인 오충석탑은 서천군에 있는 하나뿐인 보물로 제224호이다. 화강암으로 된 이 석탑은 높이가 6.2m인데 부여의 정림사지 오충석탑을 흉내내어 만든 탑이라고 한다. 고려시대의 탑으로 여겨지는 이 탑은 지금

은 한 층이 없어져 사층만이 남아 있다.

이 오충석탑은 비인지역의 불사들이 비인 경제의 중심이었던 염전과 어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과 정부의 비보사찰 건축계획과 때를 같이하여 세운 탑으로 여겨진다. 탑이 위치한 비인면 성북리에서 바다까지는 2km 남짓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염전이 발달되어 있어 경제적 풍요가 있었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탑이 위치한 지역이 코끼리가 코를 늘어뜨린 코 끝부분에 해당되어 코끼리의 역센 코 끝에 사찰을 세우게 된 것이다.

서해로 볼썽 빠져 나와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이 서면과 비인면이다. 이곳 서면의 춘장대 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와 함께 깨끗한 모래와 맑은 물, 그리고 울창한 아카시아 나무숲으로 유명하다. 해수욕장 주변 자연 경관이 뛰어난 이곳은 각종 기관의 단체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서천역에서 16km 거리로 시내버스가 5분마다 다닌다.

비인만의 맨 끝에는 동백정이라는 누각이 동백나무 숲 속에 자리잡고 있다. 400여년 전 이곳을 다스리던 어느 관리가 꿈에 계시를 받아 이곳에 제단을 세우고 동백정이라 이름을 붙인 뒤부터 이곳은 이 지방 어부들의 신당이 되어 왔다. 지금의 큼직한 누각은 전의 것을 헐어버리고 1965년에 옛 한산군 청사를 뜯어다 지은 것이다.

그 옛날에 제단을 만들 당시 그 주변에 동백나무 80 그루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 번져 오늘의 명물인 동백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이 동백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곳 어부들은 동백꽃이 붉게 피어날 사월 무렵이면 이곳에서 제사를 올린다. 삶은 돼지를 통째로 제단에 올려놓고 어부들은 그 해의 풍어를 빌며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금강하구 뚝은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와 군산시 성산면을 잇는 길이 1,841km의 뚝으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년 동안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90년에 완공되었다. 방조제가 1,127m이고 갑문이 714m인 이 뚝은 1억 3천만톤의 담수량을 자랑하며 배가 통과할 수 있고 물고기가 왕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금강 하구는 갈대 숲과 어우러져 새로운 철새도래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겨울 동안 고리와 청둥오리,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검은머리 물떼새와 검은머리 갈매기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조성된 관광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썰매장과 자동차 야외극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말기에 태어나 공민왕을 도와 이 나라 유학의 기틀을 마련한 이색이 한산면에서 태어났다.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의 생원이 되어 성리학을 연구한 그는 예문관 대제학, 판개성부사, 대사성을 지내며 성균관의 학칙을 새로 제정하고 김구용, 정몽주, 이승인 등을 학관으로 채용해 유학의 발전에 공헌했다.

고려시대 삼은의 한사람인 묵은 이색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해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우고 그를 불렀을 적에 “망국의 대부에게는 앉을 자리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여강 나루에서 독주를 마시고 목숨을 거두었다.

이색의 16세손이 또한 한산면에서 1850년에 태어난 개화기의 선각자 월남 이상재이다. 한산면 종지리에는 기념물 제84호로 지정된 이상재 선생의 생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선생의 생가는 목조 초가 삼칸집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있으며, 1981년 안채와 담을 복원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가 옆 유물전시관에는 선생이 생전에 남긴 270여점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